

밸런스 엇갈린 KIA “중심 타선이 터져야 산다”

KIA, 주중 롯데-주말 삼성 상대 안방 6연전

“쫓느냐, 쫓기느냐...” 순위 수성 승부수는 결국 ‘한방의 힘’ 김도영·아테를린 반등 절실... 2루 쿼터 시라카와 활약 주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신반기를 다시 조어했다. 상위권 추격이나, 중위권 경쟁이나. 이번 주 광주 홈 6연전이 그 무대다. 1일 기준 KIA는 28승 25패 1무 (승률 0.528)로 4위다. 선두 LG와는 5경기 차다. 2위 KT와는 45경기, 3위 삼성과는 4경기 차다. 반면 5위 한화와의 격차는 불과 0.5경기다. 위를 쫓아야 하지만 아래 추격도 뿌리쳐야 한다. 지난주는 3승 3패로 마쳤다.

프로야구 팀별 순위 (1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33	20	0	0.623	0
2	KT	32	20	1	0.615	0.5
3	삼성	31	20	1	0.608	1
4	KIA	28	25	1	0.528	5
5	한화	27	25	0	0.519	5.5
6	두산	25	28	1	0.472	8
7	NC	22	29	1	0.431	10
8	SSG	22	30	1	0.423	10.5
9	롯데	21	30	1	0.412	11
10	키움	20	34	1	0.370	13.5

주중 고척에서 키움을 상대로 스윙을 거뒀다. 하지만 주말 잠실 LG에게 싹쓸이 당했다.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분위기를 다시 바꿔야 한다. 이번 주 첫 상대는 롯데 자이언츠다. 현재 9위다. 지난주에도 2승 4패에 그쳤다. 투타 모두 주춤한 모습이다. 한 주간 팀 평균자책점 (ERA)은 5.29로 리그 7위다. 선발진부터 흔들렸다. 타선도 팀 타율과 득점권 타율 모두 0.255로 7위에 머물렀다. 다만 경기 초반은 만만치 않다. 최근 10경기 1-3회 타율이 0.301로 리그 2위다. 올 시즌 1-3회 평균자책점은 3.69로 상위권이다. 시작부터 흐름을 내주지 않는 팀이다. KIA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롯데전은 단순한 3연전이 아니다. 결과에 따라 주말 시리즈 무게감도 달라진다. 승수를 쌓는다면 상위권 추격전이다. 반대로 밀린다면 순위 수성이 더 급해진다. 바로 뒤 한화의 추격도 의식해야 한다. 이어 맞닥뜨릴 상대는 3위 삼성 라이온즈다. 선두권 경쟁이 한창이다.



김도영 지난주 팀 타율은 0.276으로 리그 3위다. 특히 홈런이 12개로 리그 최다다. 중심 타선도 3할대로 준수하다. 선발진 평균자책점은 2.61로 리그 공동 1위다.



아테를린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전력이다. 반면 불펜은 7.71로 8위다. 후반으로 갈수록 팀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KIA가 노려야 할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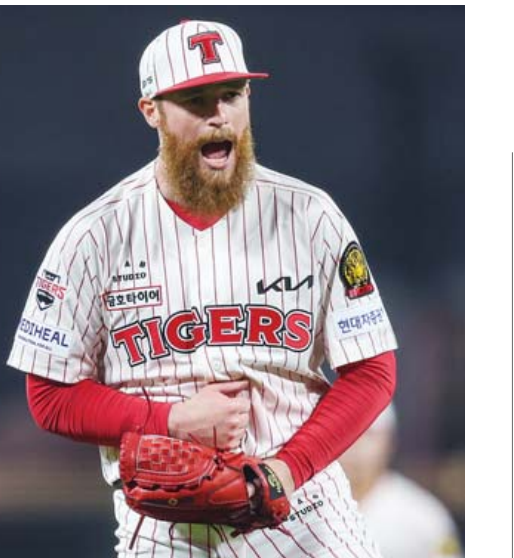
롯데와 삼성전 모두 경기 중반 이후가 관건이다. 올 시즌 맞대결 성적은 KIA의 우세다. 롯데전 4승 1패 1무, 삼성전 3승 2패다. 문제는 방망이다. 연결과 결정력을 되찾아야 한다. 지난주 팀 타율 0.237, 득점권 타율 0.244로 모두 8위에 그쳤다. 특히 중심 타선(3-5번) 타율이 0.208로 허덕였다. 간판 김도영이 살아나는 게 절실하다. 대체 외국인 선수 아테를린 역시 분방이 필요하다. 향후 거취를 가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반면 마운드는 제 몫을 다했다. 팀 평균자책점 3.69로 리그 2위다. 선발 3.69, 불펜 3.26으로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결국 승부는 득점력에 달려 있다. 점수를 내야 한다. 마운드가 버티는 만큼 타선의 응답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시라카와다. 새 아시아쿼터 투수다. 오는 4일 롯데전 선발 등판이 유력하다. KIA 유니폼을 입고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변수는 날씨가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체력 부담이 커지는 시기다. 선수층 운용과 컨디션 관리도 승부를 가를 요소다. 광주 홈 6연전. KIA의 6월을 좌우할 첫 시험대다. /주홍철 기자

‘네일 대신 올리’...KIA 올스타 팬 투표 후보 발표

김도영, 3년 연속 ‘베스트 12’ 도전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팬투표 진행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올스타 무대를 향한 경쟁에 나선다. 2026 신한 SOL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 12’ 선정 팬 투표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팬 투표는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 SOL뱅크 앱 그리고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등 총 3개의 투표 플랫폼에서 1일 1회씩 총 3번 참여할 수 있다. KBO는 3개의 투표 플랫폼 총 합계 투표수를 취합해 8일과 15일 두 차례 중간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22일 발표된다. 베스트12는 팬 투표 70%,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해 결정된다. KIA 구단에서는 나눔 올스타 후보 12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투수 부문에는 선발 올리, 중간투수 정해영, 마무리 성영탁이 포함됐다. 야수진에는 포수 한준수, 1루수 박상준, 2루수 정현창,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민이 이름을 올렸다. 외야수 후보는 박재현·김호영·나성범이다. 지명타자는 김선빈이다. 관심은 역시 김도영에게 쏠린다. KIA를 대표하는 간판스타다. 3년 연속 베스트12 선정에 도전한다. 팬들의 높은 지지를 받을 후보로 꼽힌다. 마운드에서는 올리의 도전도 눈길을 끈다. 올 시즌 6승(4패)을 거두며 다승 부문 공동 3위에 올라 있다. 유격수 부문 경쟁도 만만치 않다. 박민은 LG 오지환, 한화 심우준, NC 김주원, 키움 권혁빈과 포 대결을 펼친다. 베스트12는 팬 투표 70%,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해 결정된다. KIA는 지난해 베스트12에 최형우, 김도영,



지난 4월 24일 열린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완봉승을 거둔 후 포효하는 올리. (KIA 타이거즈 제공) 박찬호 등 3명을 배출했다. 올해는 김도영을 비롯해 몇 명의 선수가 별들의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홍철 기자

해남 산이서초에서 ‘스포츠버스’ 힘찬 출발

VR 체험부터 작은 운동회까지 호평 전남도체육회, 8곳 선정 ‘전국 2위’

전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공모로 선정된 ‘2026 움직임은 체육관 스포츠버스’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달 28일 해남군 산이서초등학교에서 학생, 병설유치원 원아, 교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는 체육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체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과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국 32개 운영기관 중 8개소가 선정되며 강원(10개소)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학생들은 스포츠버스 내부에서 다양한 스포츠



지난달 28일 해남 산이서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움직이는 스포츠 버스’ 작은 운동회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스포츠버스 사업은 단순한 체육 체험을 넘어 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지면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체육복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QR코드 찍으면 선수들에게 전화가 온다?’

광주FC, ‘시민 참여형’ 밀착 홍보 눈길

프로축구 광주FC가 시민 참여형 버스 광고를 선보이며 지역 밀착 홍보 강화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노출 중심의 기존 교통 광고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형 광고로 기획됐다. 광주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구단과 지역 사회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광고는 광주FC 홍보대사 노라조 조진과 선수들이 시민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거는 듯한 연출을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고 내 QR코드를 스캔하면 선수 및 조진과의 영상 통화 화면이 재생되며, 팬들은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답변받고 싶은 선수를 선택할 수 있다. 광주는 매 홈경기마다 참여 팬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선수단이 직접 영상 메시지를 제작, 홈경기 전광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구단 관계자는 “이번 버스 광고는 시민들이 단순히 지나쳐 보는 광고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 광주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나눔과 동행’, 배드민턴 꿈나무 지원

3년 연속 체육 꿈나무 후원

광주·전남 유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후원회 ‘나눔과 동행’이 3년 연속 광주 장애인체육 선수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며 장애인체육 발전에 힘을 더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6 나눔과 동행 정기 총회 및 후원금 전달식’에서 장애인 학생 선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대상 선수는 조동빈(유덕초 4), 최승빈(상무초 4)이며, 두 선수는 광주시장애인지정스포츠 클럽 소속으로 현재 클럽 지도자와 함께 주 2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문체육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배드민턴 꿈나무 선수다. ‘나눔과 동행’은 사회적 약자들을 후원하고 기 위해 광주 전남 기업인 40여명이 2024년 설립한 봉사단체로 지역사회 나눔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 장애인편성 조정생(300만원), 2025년 장애인육상 김천천(300만원), 김경원(150만원), 장애인배드민턴 이승후(150만원) 후원에 이어 3년 연속 장애인체육 선수를 위한 후원을



진행했다. 특히 김명원(목포제일내과 원장) ‘나눔과 동행’ 회장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나눔과 동행’ 후원회와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명원 회장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인연을 맺고 3년 연속 후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나눔과 실천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체육 예술분야에 대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